

월요광장

좋은 나라와 시인의 추방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오즈옴은 시를 읽는 사람, 게다가 제 돈으로 시집을 사서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은 행운에 가까운 드문 일이다. 시를 읽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특이한 사람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니 한 손으로 짚을 만큼 몇 안 되는 유명 시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알바’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해마다 여러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에 응모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시가 사라져 가는 세상에서도 시와 시인을 향한 열망은 왜 식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시(詩)는 물론 문학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원래 문학은 시에서 시작되었다. 시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은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이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 흥내를 낸다는 것과 시라는 것은 다르다.

시가 설 자리를 자기계발서와 실용서로 채웠다고 해서 이 책들이 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시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할 것을 권하지만, 요즘 잘 팔리는 책들은 하나 같이 격정 말리는 저자 자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일 뿐이다. 시로 돌아가자.

시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된다는 것은 시가 곧 소통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누구나 시를 각자의 눈과 감성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시가 주는 여운과 울림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때, 시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의 ‘뒤집기’다.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의 이야기를 듣고 억압된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 그래서 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곧 시의 본질이고 언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시의 본질은 언어로서 진리를 수렴하는 것”이고, “언어는 그 본질에 있어서 시”라는 말을 남겼다. 곧 시는 진리를 담아내는 곳이다. 바로 여기에 시를 불편해 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시에 대한 불편함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다. 그는 좋은 나라의 조건으로 시인의 추방을 꼽았다.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다. 플라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 즉 모두에게 좋은 나라는 시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했

다. 그 첫째 이유는 시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는 ‘가상의 가상’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일시적인 가상이며, 진리의 이데아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천상이나 존재한다.

그래서 현실은 한순간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진정한 삶이 아니다. 이 와중에 시인은 시를 쓴다는 명분으로 세상의 모방을 일삼고 이층의 ‘가짜’를 가지고 세상을 속인다는 것이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플라톤에게 시인은 속물을 넘어서 가짜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인 셈이다.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고 결국은 모든 것이 가짜가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 점에서는 플라톤의 생각을 아주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시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 때문이다. 플라톤의 국가에 필요한 사람은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려면 감정을 잘 억제하고 현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시는 세상 너머의 진리 대신, 현실 세계의 욕망과 감정에 휩쓸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온하다고 본다. 시와 시인이 청년들을 방치해 놔두지 않기 위해서 ‘시를 추방한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시인 추방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발단은 현실의 삶을

हत된 그림자로, 천상의 세계를 참모도 영원한 세계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치자로서의 플라톤이야말로 냉철한 이성 아 아닌, 권력의 욕망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한 번뿐인 ‘지금, 여기’의 삶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러한 이분법의 본질은 진리의 독점이다. 좋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혼자 결정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수 있는가? 진리는 혼자 결정해도 괜찮은 ‘점심 메뉴’가 아니다.

진리는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진리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진리는 혼자서 소유하는 것도,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 더 더욱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 운영을 위한 진리라면 더욱 그렇다. 말을 막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시인의 추방은 소통의 단절로, 감정의 억압으로 결국 인간의 소외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추방으로 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으로도 시를 향한 근원적인 마음까지 추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시와 소통의 언어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인의 추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세상에서 언어는 진실을 말하고, 삶은 흥내 내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법조칼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상 미
광주지검 검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검사로 임용되기 전 면접시험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유명한 철학자나 소설가, 경제학자의 책들도 많은데 탈렌트 김혜자씨가 쓴 책 이름을 덜컥 이야기하니... 오래 전에 선물받은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책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교육자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을 제목으로 차용한 위 책은 김혜자씨가 배우로 활동하다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쟁

과 지난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왔던 10년 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단돈 100원의 한 끼가 없어 굶주리고 죽음을 맞게 되는 아이들, 빼어난 남은 양상한 몸으로 각종 질병과 전쟁에 맞서야 하는 모습... 화려한 배우의 삶을 뒤로하고 먼 나라의 아이들이 놓여 있는 비극의 현장을 바라보며 몸서리치는 이야기다.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위 책의 제목이 자주 떠오른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었지만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부천 초등생 도박 사건’, ‘부천 미라 여중생 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꽃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 아이들을 때릴 권리가 있는 것인가.

또한, 여성에 대한 범행도 줄지 않고 있다. ‘차량트렁크 여성 납치·살인 사건’,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서부터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아이들과 여성, 아니 모든 사람들은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므로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올해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신설되었다. 검찰이 광주·전남지역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원스톱 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력 사범에 대하여는 기존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내 아이에 대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닌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가정폭력을 그냥 눈감아 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또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훈자는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 하였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고통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꽃같이 태어나 꽃처럼 살다 꽃지듯 지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기 고

‘광주 車 100만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절실



손 경 종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 지구촌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아이টে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국토건설에서 시작돼 제조, 중화학, 조선산업으로 발전해 오다가 전자교환기 개발 성공을 기점으로 IT기반 첨단산업으로 변모했다.

이후 국내 대기업의 핵심부가가치 산업이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수출 강국의 꿈을 만끽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 유럽 주요 전자기전 매장 뒤편에 싸구려로 취급받았던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매장 전면에서 비싼 값에 팔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되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면서 해외 주요공장에 설치된 국내산 TV를 통해 정보를 얻었던 때가 불과 10여년 전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 밀려있고 양적으로는 중국이 추격하는 샌드위치에 된 상황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 제조업이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천천히 죽음을 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부흥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광주시 노력은 더욱 절박한 현실이기도하다.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현재 62만대 생산규모인 기아자동차의 생산량을 100만대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소규모로 자생력이 약한 부품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생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어서 대중화를 앞둔 전기차를 증산 또는 신규생산 기반을 갖추어 산업 기반이 약한 광주에서 기아자동차와 함께 제2의 자동차도시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의 국내투자자 해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기업경영은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고임금 저생산성의 구조 속에서는 국내투자자 선

호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국내투자 유도 또한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투자자를 늘릴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야 아닐까 생각한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에서 그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고임금, 저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광주시만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한계 상황도 인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눈앞에 있다는 상황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간 자동차100만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년여의 기간을 자동차분야에 매진해오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광주에서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1965년 국내 최초로 자동차 양산을 시작한 광주의 내공을 보게 되었다. 비록 첨단제조 공법은 아니었지만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철공소에서 제작한 차체부터 가장혁신 기술인 뿌리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고민하고 지금의 기아차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전문가 그룹이 우리지역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자동차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약 3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조업의 종합선물세트인 것이다. 자동차산업이 발달된 지역은 경제가 살아난다.

세계적인 자동차도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를 통해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에 가능하다.

광주시 자동차100만대 사업은 또 다른 장벽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 예비타당성 조사 3차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슴 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본 사업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광주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가 어려울 때 광주가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의 경제위기 앞에 광주에서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의 자녀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광주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희망을 꿈꾸는 그날을 그려본다.

社 說

‘누리과정 예산 분담’ 이젠 정부가 응답하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힘든 세상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더욱 크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결국 나라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실행한 제도가 ‘누리과정’ 예산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다. 누리과정은 저소득층의 본질은 진리의 독점이다. 좋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혼자 결정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수 있는가? 진리는 혼자 결정해도 괜찮은 ‘점심 메뉴’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의 추방으로 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으로도 시를 향한 근원적인 마음까지 추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시와 소통의 언어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인의 추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세상에서 언어는 진실을 말하고, 삶은 흥내 내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청 뒷받 하고 실질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보육대란으로까지 불리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장 교육청은 “정부에서 50%나 3분의 2를 내고 교육청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인데 우리는 이러한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임을 재차 밝히면서도 교육청이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중요한 건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사이의 ‘대화’다. 장 교육청의 제안에 정부가 하루속히 응답해야 할 때이다.

다가오는 총선, 지역 현안 해결 좋은 기회다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속원사업과 대형 현안을 선거 이슈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대규모 국비 지원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 사업을 여·야의 공약에 포함시켜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분야 27개 핵심 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에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거리와 상생 교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 및 무안공항 경우 조속 추진, 남해안철도 전철화 등시 추진을 통한 2020년 완공 등 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과제를 주문했다. 서울~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갔다. 엇간

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이슈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대규모 국비 지원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 사업을 여·야의 공약에 포함시켜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총선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지역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는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 국면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긴요한 광주·전남 현안 사업에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의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는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총선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업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당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두 야당도 공약으로 채택해 발벗고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입학철이 다가오면 학부모들은 으레 자녀나 친척의 선물 때문에 고민하기 마련이다. 대학 입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로는 역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꼽힌다. 여기에 최근에는 드론이나 유명 브랜드 가방 등도 선호하는 품목에 포함된다. 여대생의 경우는 성형수술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한다.

3년 동안 고생한 자녀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 마음을 누가

타트하겠는가? 다만 대학이라는 인생의 첫

관문 앞에 서는 만큼, 자녀에게 줄 선물이라

면 좀 더 신중해도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영국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홉 번이나 감옥에 갔다. 옥중에서 열세 살 외동딸의 생일에 선물해 줄 것이 없었던 네루는 대신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몽골 제국과 칭기즈칸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위대함을 설명했다.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해 일제에 저항한 용감한 여성이라고 가르쳤고, 3·1정신을 본받으라고 강조했다. 생일 선물을 대신한 그의 편지를 묵

은 것이 그 유명한 ‘세계사 편력’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딸 인드라 간디가 아버지와 같은 인도 총리가 되어 국가 발전을 견인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로큰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린 시절 아주 불우했다.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열한 살 생일 때, 어머니에게 선물로 총을 사달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총 대신 노래에 재주가 있는 아들을 위해 기타를 선물했다.

성인이 돼서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엘비스는 어머니 생일 선물을 고민

하던 중, 당시 수 달러만 내면 음반 녹음을 해 주던 레코드 가게에 들르게 된다. 이곳에서 엘비스는 어머니 생일 선물로 음반을 만들게 되고, 이 음반이 세상이 알려지면서 그는 가수로 데뷔해 영원한 팝의 황제가 됐다.

인생의 전환점이나 행운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성공의 이면에는 관심과 사랑이 있다. 고민해 보자. 정성 어린 선물이 당신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7-9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